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지인[1] · 오유진[1] · 신유정[1] · 임지현[1] · 조은희[2]

[1]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 [2]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Influence of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and Perception of a Good Death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iin Choi[1] · Yujin Oh[1] · Yujeong Shin[1] · Jihyeon Lim[1] · Eunhee Jo[2]

[1]Kunsan College of Nursing, Undergraduate

[2]Kunsan College of Nursing, Associate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별책』 제9권 제2호 2025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9, No. 2, June. 2025

한국간호연구학회지 제9권 제2호 2025년 6월 ISSN(Print) 2586-2057 · ISSN(Online) 2671-5686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9, No. 2, 59-69, June 2025 https://doi.org/10.34089/jknr.2025.9.2.59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지인[1] · 오유진[1] · 신유정[1] · 임지현[1] · 조은희[2]

[1]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 [2]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Influence of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and Perception of a Good Death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iin Choi[1] · Yujin Oh[1] · Yujeong Shin[1] · Jihyeon Lim[1] · Eunhee Jo[2]

[1]Kunsan College of Nursing, Undergraduate
[2]Kunsan College of Nursing,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and their perception of a good death on their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thod :** Participants wer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five nursing schools in Province J.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y 29 to June 20, 202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3.0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Results :**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in order of significance, perception of a good death (β = .41, p < .001),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β = .38, p < .001), and grade(4th) (β = .14, p = .023). **Conclusion :** To foster a positive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communication-based programs that enhance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and perception of a good death.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raining period.

Key words : Advance Directives, Perception, Attitude to Death, Nursing Student

교신저자 : Eunhee Jo / (54068) Kunsan College of Nursing, 7 Dong, Gaejung-gil, Gunsan, Korea.
Tel : +82-63-450-3820, Fax : +82-63-250-1504, E-mail : almaz0920@kcn.ac.kr
접수일 : 2025.04.01 / 수정일 : 2025.05.12 / 게재확정일 : 2025.06.1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은 평균 생명연장 및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1], 연명의료가 회복 가능성이 적은 말기 환자를 회복시키지 못할 때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되었다[2]. 2024년 6월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말기 환자가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권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이다[3].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호스피스 이용 및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임종기에 받는 의료행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판단력이 있는 상태의 19세 이상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들은 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향후 받을 의료 처치에 대해 미리 문서로 결정해 두는 것이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임종 과정과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경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 습득된다[5].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이나 관련 지식뿐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학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6,7]. 간호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식 및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말기 환자에게 치료의 선택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8,9]. 또한 간호사는 말기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는 중요하다[10]. 따라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좋은 죽음인식은 임종 시 존엄성 유지, 육체적 안락함,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지속, 그리고 영적 안정이 포함된 죽음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11].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은 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므로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한 채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사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명확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2].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는 시기에는 환자와 가족에게 포괄적인 간호가 요구된다. 간호사는 치료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13],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14].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면 향후 임상 현장에서 관련 상황을 마주할 때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말기환자 간호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15].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짧은 시간에 형성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지므로 대학에서의 간호교육 과정에서부터 이를 꾸준히 다루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정립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6]. 따라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는 시도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1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프로그램 적용에서 연명의료 지식 및 태도가 실험군에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18], 좋은 죽음인식과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15].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19], 간호사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4].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연명의료중단 태도 등을 포함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단순한 생명연장이 아닌 좋은 죽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임상 현장에서 말기 환자를 만나게 될 간호대학생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간호인으로서 질적 돌봄의 주체인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을 파악하고,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및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및 연명의료중단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및 연명의료중단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소재한 5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을 하였다.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수의 표본 크기는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 변수 8개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 수는 160명이었으며, 15%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88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설문지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가 없어 188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Hong과 Kim[20]이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나, Lee 등[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9개 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모른다’로 구성하여 응답하며, 오답과 모른다는 0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 범위는 0~9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과 Kim[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 좋은 죽음인식

좋은 죽음인식은 Schwartz 등[21]이 개발하고 Jeong[22]이 번안하여 사용한 좋은 죽음 개념 측정(The Concept of Good Death Measu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7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Schwartz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 Jeong[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이었다.

3) 연명의료중단 태도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Park[23]이 개발한 연명의료중단 태도 측정 도구를 Byun 등[13]이 수정·보완한 측정 도구(Attitude toward Withdrawal from Life-Sustaining Treatmen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yun 등[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3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시행되었다. 각 학교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 공고문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참여자의 익명성, 비밀 유지, 연구의 참여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대학별 응답자 수에 대한 할당 없이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3, 4학년 학생 중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설문지 작성에는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작성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보안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및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및 연명의료중단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149명(79.3%), 남성이 39명(20.7%)으로 여성이 더 많고, 나이는 20～29세 167명(88.8%), 30～39세 11명(5.9%), 40세 이상 10명(5.3%) 순이다. 학년은 3학년이 100명(53.2%), 4학년이 88명(46.8%)으로 3학년이 더 많고, 종교는 있음이 65명(34.6%), 없음이 123명(65.4%)으로 있음이 더 많았다. 동아리는 있음이 106명(56.4%), 없음이 82명(43.6%)으로 있음이 더 많았다. 가족 또는 친척의 임종 경험 여부는 있음이 36명(19.1%), 없음이 152명(80.9%)으로 없음이 더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차이에서 학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3학년보다 4학년이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17$, $p=.032$)(Table 1).

Table 1. Difference among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 = 188)

Characteristic	Categories	n(%) or M±S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SD	t or F(*p*)
Gender	Male	39(20.7)	2.18±0.40	2.91
	Female	149(79.3)	2.16±0.42	(.057)
Age(yrs)		24.57±6.40		
	20～29	167(88.8)	2.15±0.42	0.34
	30～39	11(5.9)	2.11±0.38	(.724)
	≥40	10(5.3)	2.46±0.37	
Grade	3rd	100(53.2)	2.10±0.40	-2.17
	4th	88(46.8)	2.23±0.43	(.032)
Religion	Yes	65(34.6)	2.12±0.40	-0.99
	No	123(65.4)	2.19±0.43	(.322)
Club	Yes	106(56.4)	2.13±0.38	-1.05
	No	82(43.6)	2.20±0.45	(.297)
Experience the death of family or relatives	Yes	36(19.1)	2.15±0.44	-0.13
	No	152(80.9)	2.16±0.41	(.893)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Degree of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Good Death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 = 188)

Variables	M±SD	Min	Max	Range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5.77±2.40	0.00	9.00	0～9
Good death perception	1.92±0.41	1.00	3.00	1～4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16±0.42	1.00	3.89	1～5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2.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연명의료중단 태도 정도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정도는 9점 만점에서 평균 5.77±2.40점이었고, 좋은 죽음인식 정도는 4점 만점에서 평균 1.92±0.41점이었으며, 연명의료중단 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2.16±0.4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연명의료중단 태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및 연명의료중단 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좋은 죽음인식(r=-.03, p=.689)과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중단 태도(r=.37, p<.001)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좋은 죽음인식은 연명의료중단 태도(r=.41,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Good Death Percepti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 = 188)

Variables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Good death percepti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 (*p*)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1		
Good death perception	-.03 (.689)	1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37 (<.001)	.41 (<.001)	1

4. 대상자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차이를 나타낸 연령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선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고 분상팽창 요인값과 공차한계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01～1.003으로 10 미만이고 공차한계는 .997～.999로 0.1 이상이었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값은 1.80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변수 중 좋은 죽음인식(β = .41, p < .00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β = .38, p < .001), 학년(β = .14, p = .023)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회귀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3%(F = 30.13, p < .001)이었다(Table 4).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을 파악하고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예비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이 죽음을 앞둔 환자 및 보호자의 입장에서 상담자이자 옹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정도는 9점 만점에 평균 5.7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Jang과 Kim[24]의 연구 결과인 6.6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 특성에서 가족 중 죽음과 관련된 경험은 있음이 19.1%이며 없음이 80.9%로 나타났으나, Jang과 Kim[24]의 연구에서는 가족 중 죽음과 관련된 경험에서 있음이 65.7%, 없음이 34.3%로 가족 중 죽음과 관련된 경험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경험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

Table 4. Influencing Factor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 = 18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93	0.14		6.75	<.001
Grade(4th)†	0.12	0.05	.14	2.30	.023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0.06	0.01	.38	6.32	<.001
Good death perception	0.42	0.06	.41	6.80	<.001
R = .57 R^2 = .33 F(p) = 30.13 (<.001)					

† Reference = Grade(3rd)

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간호대학생인 것과 달리, 실제 임상에서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g과 Cheon[25]의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의 정도가 8.02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인해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26]. 호스피스 교과목을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있으나, 반복 교육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인식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92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선행연구[27,28]에서는 각각 2.97점과 3.16점으로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28]의 연구에서 가족 중 죽음과 관련된 경험에서 있음이 75.4% 없음이 24.6%로 가족 중 죽음과 관련된 경험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중 죽음과 관련된 경험에서 있음은 19.1%이며 없음이 80.9%로 가족 중 죽음의 경험이 좋은 죽음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죽음을 앞둔 대상자들을 간호할 때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준 경험이 좋은 죽음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15]. 따라서 가족 중 죽음과 관련된 경험이 좋은 죽음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좋은 죽음인식 정도는 죽음에 대한 개인 가치관, 철학이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련 변수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16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실시된 Kim과 Kim의[29] 연구결과인 3.2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 간호사의 경우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다양한 윤리적 사례들을 접하면서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을 것[30]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직접 실습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 임상 실습 이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교육의 경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태도와의 차이에 있어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 3학년은 2.10점이었고, 4학년은 2.23점으로 4학년이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1-33]에서 3학년보다 4학년의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높다고 나타낸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4학년이 3학년보다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높은 것은 4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 실습을 통하여 죽음과 관련한 윤리적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와 의사결정 존중 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과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연명의료중단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7]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Kim[26]의 연구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좋은 죽음인식은 연명의료중단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좋은 죽음인식이 높을수록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Choi와 Jeong[15]의 연구결과와 같다.

Kim[18]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이처럼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생애 말기 간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좋은 죽음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윤리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죽음인식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Cho[34]의 연구에 근거하여 간호학과 교과과정에 좋은 죽음의 개념을 반영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학년(4학년)순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지식은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2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인식은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영향 요인이었다[1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와 Ki[4]의 연구에서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인식이었으며,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연명의료중단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점에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좋은 죽음인식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등을 포함한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후속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연명의료를 통해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존엄성을 고려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인지는 임종 환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옹호자로서 환자와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시기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을 높여서 긍정적인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과 관련된 이론교육에서의 토론, 토의와 같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험을 쌓고, 임상 실습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긍정적인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과 연명의료중단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연명의료중단 태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학년(4학년)순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좋은 죽음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노인간호학 수강 경험 및 연명치료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죽음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년별 단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연명의료중단 태도를 확립하도록 간호학부 전공 교과목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과 관련한 구체적 학습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므로,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감수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Son ES, Seo MJ. Factors influencing advanced directives among hemodialysis pati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22;25(3):243-259. https://doi.org/10.35301/ksme.2022.25.3.243
2. Lee HJ, Ha JH, Yun JM.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to advance medical directives and ethics valu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9;25(4):282-291.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4.282
3.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2024 [Internet]. [cited 2025 June 12]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main.html
4. Cho EA, Ki JS. Effects of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knowledge toward advance directive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4):688-698.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688
5. June KJ, Jeong SH, Ahn HJ, Hong YK, Lee YJ, Kim YA, et al.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well-dying and knowledge for advanced directiv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2019;14(1):1-7. https://doi.org/10.22715/jkarhn.2019.14.1
6. Suh MY, Kim JS. The relationship among death anxiety,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in middle-age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21;23(3):226-238. http://doi.org/10.17079/jkgn.2021.23.3.226
7. Ryu K, Park MM. Awareness of well-dying, ethical sensitivity, knowledge and attitudes to advance medical directives: focusing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2024;9(2):43-48. http://doi.org/10.31152/JB.2024.04.9.2.43
8. Park EH, Kim NY.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 and death anxiety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8;30(2):183-193.
9. Park JA, Jung DY. The comparing perception of advance directives in one general hospital doctors and nurses. Health & Nursing. 2013;25(2):25-33.
10. Seo YH, Lee HJ. A comparison of awareness to well-dyi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erminal care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2020;37(5):1430-1440. https://doi.org/10.12925/jkocs.2020.37.5.1430
11. Yeom EY. The influence of good death awareness and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on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s in middle-aged adul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2):676-685. https://doi.org/10.5392/JKCA.2021.21.02.676
12. Lee EJ, Lim HN, Lee MH, Kim DR. The effect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ICU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2;23(7):377-388. http://doi.org/10.5762/KAIS.2022.23.7.377
13. Byun EK, Choi HR, Choi AL, Kim NM, Hong KH, Kim HS.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the attitud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on terminating life support.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3;9(1):112-124.
14. Min JH, Kim SH. Effects of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ole percep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4;25(4):466-477.
http://doi.org/10.5762/KAIS.2024.25.4.466

15. Choi EJ, Jeong HS.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5):275-284.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75
16. Yang SA.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0;10(12):226-235.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2.226
17. Kim HY. Influence of perception of good death, knowledge toward advance directiv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Gwangju: Honam University; 2023 p. 1-75.
18. Kim JS. Development and effect of advance directive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9;21(4):2131-2149.
http://doi.org/10.37727/jkdas.2019.21.4.2131
19. Kim DR, Yang CY, Chae HW, Jang JE, Yoon JS, Jo EH. Effects of good death perception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n the attitude towards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3;24(3):81-90.
https://doi.org/10.5762/KAIS.2023.24.3.81
20. Hong SW, Kim SM.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330-340.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330
21. Carolyn ES, Kathleen M, Jane R, Yunsheng M, George R.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2003;6(4):575-584.
https://doi.org/10.1089/109662103768253687
22. Jeong HS.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master's thesis]. Busan: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2010 p. 1-60.
23. Park GS. Study of consciousness of euthanasia among health professionals : Q-methodological approach [master's thesis]. Seoul: Dankook University; 2000. p. 1-98.
24. Jang IS, Kim YJ. Effects of awareness to well-dyi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dvance-directives on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019;22(2):104-113.
https://doi.org/10.7587/kjrehn.2019.104
25. Jeong JH, Cheon JY. Relationship of knowledge of end-of-life car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 directive with the educational needs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writing among nurses in general hospital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2020;6(1):45-53.
https://doi.org/10.20465/KIOTS.2020.6.1.045
26. Choi SY, Kim KH.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knowledge of advanced directives, good death perception on nurses' attitudes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 general hospital.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020;23(2):120-131.
https://doi.org/10.7587/kjrehn.2020.120
27. Kim KS.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abortion and perceptions of euthanasia and good death.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1;11(3):68-76.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3.068
28. Kim KN, Kang EH, Kim MY. Factors influencing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3):429-437. https://doi.org/10.5762/KAIS.2019.20.3.429

29. Kim SN, Kim HJ. Recognition of good death, attitude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s euthanasia in nurses.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16;19(2):136-144. https://doi.org/10.14475/kjhpc.2016.19.2.136
30. Kang BH, Won SA, Kang HH. Levels of concern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6;19(3):340-357. https://doi.org/10.35301/ksme.2016.19.3.340
31. Huh SS. Influence of moral self-concept, ethical values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11):76-84.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76
32. Kim EY. Effects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9):453-463. https://doi.org/10.14400/JDC.2018.16.9.453
33. Park KS. Impact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moral sensitivity on the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2;23(9):81-90. https://doi.org/10.5762/KAIS.2022.23.9.81
34. Cho EA. Perception of good death, knowledge and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among the nursing graduat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12):624-638. https://doi.org/10.5392/JKCA.2018.18.12.624